



BRIDGE

<http://www.dropin.or.kr>

架橋

2020. 7월 VOL.15



 서울특별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13)
Tel. 02)363-9199, 9195 Fax. 02)363-9198



Contents

- 03 | 인사말
- 04 | '백의의 천사' 따뜻한 손길
- 06 | 실습을 마치고
- 07 | 2020년 상반기 상담 현황
- 08 |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효과
- 09 | 탁구·웃음치료를 통한 변화
- 10 | 노숙인 일자리사업의 방향
- 11 | 2019년 사업결과보고
- 12 | 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 13 | 희망원룸에서 찾은 꿈
- 14 |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한 거리노숙인을 바라보며
- 15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기관 대응 실태

발행처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우 03741)
T. 02)363_9199, 9195
F. 02)363_9198
<http://www.dropin.or.kr>

발행인

이문재

편집인

김남영

발행일

2020년 7월

디자인 제작

예함

인사말



원장 이문재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문화생활,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동선은 단순해졌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교육이나 모임, 공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그 동안 사회에서 단절되어 왔습니다. 그들을 바이러스 처럼 여기며 기피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노숙인 가운데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아마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는 노숙인의 웃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숙인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일 밥을 굶고 거적대기를 덮는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자존감은 낮아져서 왜곡된 자존심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노숙인의 탈노숙을 위해 주거지원과 신용회복, 자활프로그램, 일자리 등 좋은 사업이 있지만, 노숙인의 정신문제와 질환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의 병을 돌아보고 치유하도록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노숙인 스스로 삶의 목표를 깨닫고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숙인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엮어나가야 합니다.

노숙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며,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가치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브릿지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노숙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브릿지공동체’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의 천사’ 따뜻한 손길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17년째 간호활동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체로 국내외 취약계층 무료진료 간호활동과 가정방문 간호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겨울 어느 날. 번쩍거리는 네온사인과 음악소리, 사람들의 대화소리로 가득한 서울의 밝은 불빛아래 구석진 곳에서 쪼그리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퇴근길에 접하게 되었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떠오른 생각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간호사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였다.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대한간호협회 간호봉사단에서 추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한용품과 감기약, 파스 등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거리간호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격주 금요일 저녁 6시에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간호봉사 물품과 약품을 준비,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후 2조로 나누어 시청을 중심으로 광화문과 종로 일대, 그리고 을지로 일대의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감기증상이나 두통, 요통 등을 호소하며 준비한 약품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건강 체크를 하여 약품이 필요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함에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짜증을 내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면 함께 동행하는 야간 상담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여 의료처치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센터로 내소하여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봉사활동은 매월 진행되지만, 매번 같은 시간 반복하며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간호봉사활동은 더욱 의미가 있으며 건강하게 항상 그곳에 계셔서 더 뿌듯하기도 하다.

더불어 간호봉사를 하면서 서울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다. 가까운 거리도 버스나 전철, 때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매월 간호봉사를 통해 서울 도심야경과 서울시청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접할 수 있는 덤과 겨울의 차가운 바람도 따뜻하게 가슴으로 맞는 느낌이 있다.

올해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으로 WHO가 정한 '간호사의 해'로 의미있게 다가온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확산되어 대구지역 등 감염자 치료와 간호, 검체 채취, 치료센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간호봉사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어 많이 아쉽다. 코로나 위기가 회복되어 다시 야간 거리상담 간호봉사활동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거리에 계신 분들께서 빨리 경제적인 회복과 건강회복 등으로 거리생활을 접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 상담하고 지원하는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선생님과 상담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더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 건강을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간호봉사단 자원봉사자_오경현



실습을 마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과연 이 실습을 나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습하는 곳이 노숙인들을 위한 기관이었기에 몇 번이나 기관이 운영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었습니다. 센터 안에서의 업무보다는 아웃리치가 주된 업무였기에 더더욱 두려움이 앞선 실습이었으며, 야간에 시행되는 아웃리치는 평소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실습 전에는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못하였고 멀리서 노숙인 비슷한 분들만 보여도 피하였습니다. 실습기간동안 무료급식 배식시에 바로 옆에서 같이 배식 보조 일을 하였는데, 노숙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실습기간 중반부터는 친해지게 되어서 농담도 주고받고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분들께서 먼저 해주시는 모습에서 오히려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으로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실습지도자님께서 스스로없이 노숙인들을 대하시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습 초반에 놀라기도 하였고 존경스러운 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및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분들이 조속하게 자립을 하고, 사회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의 개념이 실습을 통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많은 괴리감이 존재하며 이상만으로는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행하는게 아니라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윤리적인 측면, 가치를 가지며 태도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실습생_ 조성연



2020년 상반기 상담 현황



1) 전체 주간 상담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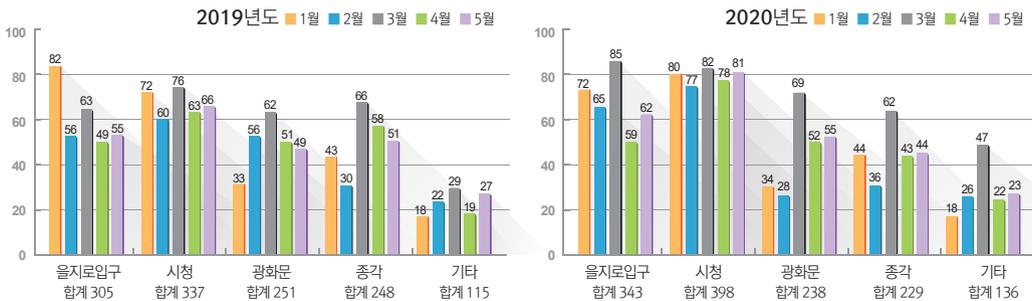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상담서비스 현황을 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단체생활인 쉼터입소가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자와 대면해야 하는 생활상담에 있어서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신, 주거, 취업, 의료 상담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주거와 취업상담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쉼터입소의 제약과 일자리감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 전체 야간 상담서비스 이용 현황

2019년도 5월까지 상반기 야간상담의 총합계는 1,256건이고 2020년도는 1,344건으로 작년보다 88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상반기 야간상담은 월 평균 269건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2020년 목표 상담건수 평균에 큰 편차 없이 월 실질 상담건수는 평균오차 +10 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역시 을지로입구와 시청 지역의 상담건수가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이상 (55.1%)을 차지하였다. 이는 본 센터 관할지역 거리 노숙인의 주요밀집 지역으로 파악되며 기타 단체등의 노숙인구호서비스 역시 집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시설입소상담이 불가능했으나 방침이 변경되어 코로나19검사와 결핵검진을 받은 후 양성의 결과가 있으면 입소가 가능하게 되어 하반기에는 입소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기획상담 과장_김영택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효과



정00(64년생 남)씨는 서대문에서 친구와 오랜 기간 폐지, 고물 수집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 지 내던 월세방에서 나와 시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노숙인에게 브릿지종합지원센터를 소개받고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고시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높이 평가한 고시원측의 요청으로 총무일을 2년여가량 맡게 되었습니다. 오랜 지병이었던 척추측만증을 노숙인의료급여 혜택으로 진료의뢰서 발급 후 수술 받게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관할주민센터와 상담을 통하여 매입임대주택을 지원 받아 현재 원만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00씨의 사례와 같이 초기 노숙인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 지원을 연계하였을 때 만성 노숙인이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만성노숙인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경우 거리로 나오지 않고 주거지를 유지할 확률은 초기 노숙인에 비하여 떨어집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이점을 경험하여 주거지원 혜택이 종료가 되었을 때 특별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일용직 등 주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의 생활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주거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노숙인이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서비스를 안내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종합지원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소 열악하지만 고시원이나 쪽방에서의 주거생활을 경험하고 이후 상향된 주거 환경인 매입 임대 주택으로의 연계 등,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상담 과장_김영택

구세군ARC연수원 (송파구 소재)

ARC (Adult Rehabilitation Center, 성인 재활 시설) 연수원은 중독인 및 노숙인을 위해 육체와 정신, 그리고 도덕성과 사회성뿐만 아니라 영성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재활에 이어 자활훈련을 시행함으로써 홀로서기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5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40명의 수련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탁구·웃음치료를 통한 변화



신규 프로그램 진행 : 기존의 주간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이용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특화 프로그램 부족하다는 평가결과 2020년부터 웃음치료(웃으면 복이와요) 및 탁구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운영.

기대효과 : 시설 이용인과 거리 노숙인에게 일상 속에서 생활의 자극제 또는 전환점이 거의 없음. 음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비용이 또한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리 노숙인 및 이용인 대상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변화 :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고난도 웃음으로 이겨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가 활동의 소외계층인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높이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코로나 19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전 웃음치료와 탁구 프로그램의 참여자 분들 대부분이 생소한 경험으로 인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여 이전 어두웠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대인관계 및 시설 생활모습에서도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임. | 생활지원 과장_ 권오현



웃음치료 : 화요일 10:30~11:30 (1시간)



탁 구 : 금요일 10:00~12:00 (2시간)

노숙인 일자리사업의 방향



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질적 요소는 ‘근로능력’ 보유 여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ICT기술 확대, 생산기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기존의 콘택트 일자리는 줄고 언택트, 온택트라는 신규 직업들이 생기면서 더 급격한 변화과정에 놓여있다. 이런 변화과정 속에서 경쟁력이 낮은 노숙인들은 더욱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도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 놓여있으며 앞으로 나아가할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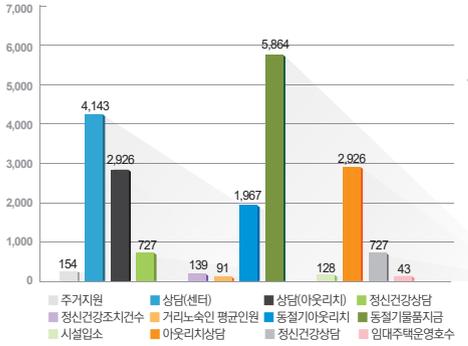
첫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노숙인 일자리 지원의 효율화이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치료, 더불어 취업성공 열린학교의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대응력 향상 등 실질적으로 민간일자리 구직에 관한 기술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또한 시대흐름에 맞춰 언택트 교육으로 진행할 방법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과 자격증 취득지원을 연계하고, 그 외 지원되지 않는 분야의 자격증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일자리 연계 강화이다. 민간일자리 부분에서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고, 수요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일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회적경제일자리로 채워나갈 것이다.

셋째, 장기적 과제로 일자리 진입장벽 최소화를 위한 one-stop(원스톱) 서비스의 체계화이다.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와 채무, 명의도용 등으로 신용불량으로 구직 경쟁력이 낮아 공공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무조건적인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이 아닌 종합복지의 관점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는 선생님들의 일자리 관심유도를 위해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다.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국장_최성진

2019년 사업결과보고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2019년은 계획대비 큰 차이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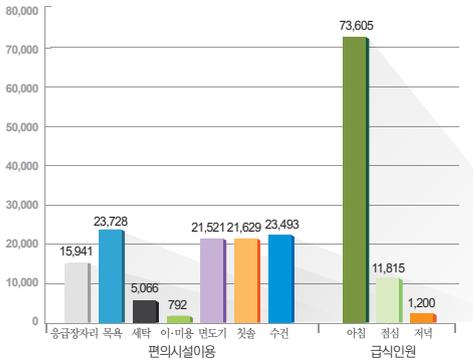
[표1 기획상담과 사업 요약]

1. 기획상담과

기획상담과의 임시주거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은 목표대비 실적달성이 무난하나 주간상담, 야간상담실적의 경우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용인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동목욕사업의 경우 19년에는 목표설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20년도에는 목표설정을 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생활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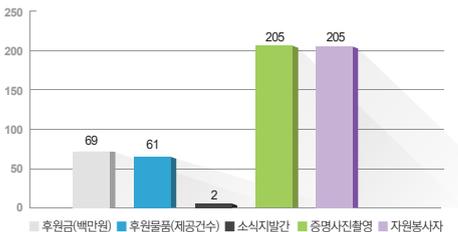
생활지원과는 전년도부터 주변 주민의 꾸준한 시설 관련 민원을 개선하고자 자활근로자 배치를 통한 시설 및 주변 환경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응급잠자리의 해충 유입으로 인한 이용인의 불편사안은 환경정비를 통해 개선하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료급식 이용인 자체모니터링(급식이용 선호도)을 통한 식단표 작성 시 반영할 예정이며, 시설 노후화 및 다수의 이용인원으로 인한 시설물 고장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이외의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의 구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외부 자원 활용방안 고민과 대안을 찾고 있다. 제한적인 운영비 내에서 이용인의 편의서비스 제공 시 각종 소모품(일일용품, 세탁, 목욕 등)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각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2 생활지원과 사업 요약]

3.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의 부족한 부분 보완 및 과제 수행이 계획안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원 사업 부분은 전직원 모두가 신규 후원자 발굴 및 후원처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교육과 자원봉사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계획하에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홍보 및 자원봉사관리, 후원관련업무의 영역을 확장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사무국장_전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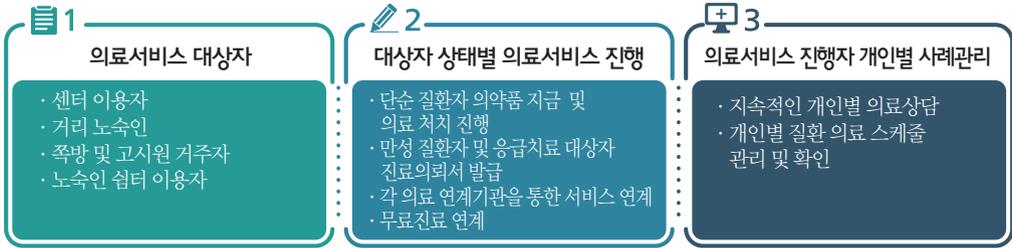


[표3 행정지원과 사업 요약]

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의료서비스 진행절차

2019년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평가 설문 진행 시 의무실 주유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료의뢰서 발급을 통한 병원 이용, 의료상담, 활력징후 측정 및 처치, 무료진료, 건강교육, 의무실 이용함으로써 건강 향상 기여, 의무실 이용 시 친절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44%), 만족(38%), 보통(14%), 불만족(0.5%)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설문지

1. 의무실에서 건강상담 시 본인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의무실에서 행해지는 건강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긍정(23명/46%), 긍정(17명/34%), 보통(10명/20%)으로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응답	매우긍정	긍정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부족	무응답	합계
18년	12	17	17	1	0	1	48	
19년	23	17	10	0	0	0	50	

2.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진료 행사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기관은?

만족도 조사 시 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무료진료 행사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기관은 서울아산병원(38%), 구세군 의료진교회(20%), 고려대학교의료원불자회(14%)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처방 뿐 아니라 검진, 한방과 치료 등이 가능한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년도	응답	서울아산병원	구세군의료진교회	고려대학교의료원불자회	서대문구보건소대사중유근검진	참여한적없다	합계
19년	19	10	7	3	11	50	

3. 노숙인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센터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숙인 의료급여 미신청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28%가 노숙인 의료급여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진료의뢰서 발급, 무료진료소 이용, 무료진료 참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진료의뢰서 발급을 제한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을 더욱 권장할 필요가 있다.

년도	응답	노숙인 의료급여를 잘 알지 못함	신청기준 불충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	기타	무응답	합계
18년	19	9	9	2	2	7	48	
19년	14	13	14	2	4	3	50	

4. 건강교육 참여 시 보건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건강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68%는 보건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서비스 이용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의무실을 이용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노숙인 뿐 아니라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연계,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진료 독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간호사_장희원

년도	응답	매우긍정	긍정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부정	무응답(미참여 포함)
19년	14	20	9	0	0	7	

희망원룸에서 찾은 꿈



희망원룸에 입소할 때 계획은 거의 모두가 저축을 열심히 하여서 임대주택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퇴소 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희망원룸에서 꿈을 찾아 주거안정을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하고 저축하여 퇴소 후 매입임대주택이나 지원주택, 월세집 등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퇴소자 53명 중 40명(75.5%)에 달합니다. 2018년은 74.1%, 2019년은 66.7%였고 2020년은 90.9%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생활이 자활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활에 한 발 더 다가선 건 분명하지 않을까요! | 희망원룸 과장_김동현

연도별 희망원룸 퇴소 후 주거형태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퇴소자수	27명		15명		11명	
임대주택	9명	33%	2명	13%	4명	36%
지원주택						
월세	11명	41%	8명	54%	6명	55%
시설	6명	22%	3명	20%	0명	0%
기타	1명	4%	2명	13%	1명	9%



입주인 수기에서 내용 발췌

희망원룸 생활로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소를 되살리게 해준 프로그램들과 현재 상황에 맞는 일자리 제공, 많지는 않지만 저축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퇴소 후에는 작은 보금자리 까지 생겨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원룸의 2년 생활이 그냥 2년이 아닌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인연”입니다.

입소 전의 저는 지치고 힘겨운 사람이었는데, 희망원룸 생활이 커다란 희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다음에는 꿈꿔왔던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딸과 사위, 손녀를 떳떳하게 만나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해봅니다. |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한 거리노숙인을 바라보며



IMF(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직장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을 맞게 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낮은 노숙인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량 발생한 실업 문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취약계층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 응급숙박, 무료급식 및 의료서비스, 주거, 취업, 시설 연계 등 정부 정책의 흐름에 의하여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정책의 흐름을 보다 먼저 이해하고 실천해야하는 단체로서 노숙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거리노숙인 구호와 노숙인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하여 더욱 복잡해지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설 거주자를 줄이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인 구세군의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구호아래 일시 보호시설로서의 일차적인 서비스 외에도 만성 노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거우선의 접근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방법과 달리 모든 노숙인에게 지역사회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

노숙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망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구세군서대문사랑방 부장_ 정민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기관 대응 실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확산이 지속되며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본 시설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염예방교육” 및 “국민감염 예방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실천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무료급식, 편의서비스, 응급잠자리,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일일이용인원이 평균 300명가량 되며 이용인 대다수가 거소가 불명확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확진 시 감염경로 및 밀접 접촉자 파악에 매우 어렵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자체문진표를 작성하여 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인 및 외부인(종사자)은 체온측정 및 문진표, 마스크 지급(1인 2일사용 기준) 및 착용을 원칙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자체방역관리를 하였다. 이후 3월 중순에 열화상카메라 및 자동손세정제를 출입문 쪽에 설치 운영하여 감염예방 및 검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각 사무실 및 안내데스크에 상담 시 비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방지칸막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산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 노숙인 및 시설이용인 중 확진자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름에 시설방역관리가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될 때까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설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시설이용인 문진표 작성



시설 자체 방역(1일 3회)



열화상카메라 운영



자동손세정제 설치



[소통과 관심으로 사랑나눠요.]



단 돈 천원에 따뜻한 한 끼가 해결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으켜 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에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KB 국민은행 011201-04-188390 | 예금주 :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